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OCT 18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53 1982년 10월 14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October 1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국인의 교육열이 으뜸

대학진학 계획 전체의 90%
유태인보다 높아 민족별최고

토론토내 한국계 학생의 90%가 대학진학의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이는 에트닉·그룹중 교육열이 높기로 이름난 유태계의 87%를 누르고 최고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통계는 토론토교육위원회가 8학년 학생 4천명의 상대로 실시한 조사결과 나타난 것이다.

토론토교위가 토론토대학교 학생행정위원회의 협조로 약$1만을 들여 실시한 이 통계는 또한 대학진학 가능성은 학생의 능력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정의 경제상태가 진학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됨을 지적했다.

전체 조사 대상 학생중 58%만이 자신이 대학진학 가능성을 믿었고, 포르투갈계는 겨우 30%, 인도계도 32%만이 가능성을 믿었다.

교육위 위원장 밥·스펜서씨는 12일 가자회견에서 조사 결과 대학진학은 학교나 교사보다 부모의 영향에 의해 많이 좌우되며 고교과정의 선택과목이 학생의 앞날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중 33%는 고소득층 학생이며 40%가 저소득층가정 학생인 반면에, 진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중에는 무려 67%가 저소득층가정 학생이며, 5%만이 고소득층가정 학생으로 집계되었다.

스펜서위원장은 이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도프로그램이 빈약하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는 학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므로 학부모들이 학교측과 밀접한 접촉을 갖도록 하는 방향을 강구하라고 학교측에 당부했다.

그는 또한 8학년 학생중 58%만이 대학에 갈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적어도 80%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블루어에 칼부림

교민 1명 중상
가해자 구속

한국인끼리 블루어상가에서 시비가 붙어 1명이 칼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메트로 토론토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11일 자비스 스트릿에 거주하는 김철수(41살)씨를 살인미수 및 무기소지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렁이 잡이및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김씨는 이날 새벽 1시 반경 블루어 스트릿의 몬트리얼은행 뒷쪽에서 일행이던 남상열(39세·일명 김청, 주소 메이저 스트릿)씨의 가슴을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렸다.

토론토·웨스턴 병원으로 옮겨진 남씨는 한때 위급했으나 13일 현재 일단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병원당국이 밝혔다.

피해자 남씨는 김씨 밑에서 지렁이 잡이로 일해 왔으며, 김씨는 지렁이업을 하면서 택시운전수로 일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다른 교민일행 4명과 함께 이날 새벽 1시 경까지 블루어·웨스트 6581/2번지의 내고향통닭집에 있다 앉은 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다.

일행중 방문자인 정모씨는 현재 이민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사소한 시비끝에 일어난 단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당 린·맥도날드 승리
무소속의 워딩턴 간신히 눌러
3개 연방보궐선거 보수당이 2개의석 차지

조·클락당수가 이끄는 보수당은 12일의 연방하원 보결선거에서 온타리오주의 3개 지역중 2개 지구에서 무난히 의석을 얻었으나 토론토 브로드뷰·그린웃에서는 신민당에 참패했다.

온타리오주 리즈·그렌빌(Leeds－Grenville)에서는 보수당의 제니퍼·코싯(34)후보가 압승했다. 제니퍼씨는 지난 3월 사망한 남편 토마스·코싯의원의 뒤를 이어 의석을 계승하게 됐다.

북부 티미스케이밍에서도 대대로 신민당과 자유당에 눌려 3위를 쫓아오던 보수당이 압승했으나 이번 보궐선거중 가장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 브로드뷰·그린웃에서는 신민당이 린·맥도날드, 무소속의 피터·워딩턴에 훨씬 뒤지는 3위에 머물었다.

브로드뷰·그린웃의 선거양상은 토론토·선지 편집장인 피터·워딩턴이 보수당후보에 도전했다.

그리스계 이민인 패찌스 후보에 밀린 뒤 선거 5주전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보소당의 가능성이 희박해 졌으며 사회사업가이자 페미니스트인 신민당의 린·맥도날드(42)의 기회는 커졌었다.

그러나 직선적이며 날카로운 언론가인 캐나다 수상지망자 피터·워딩턴의 도전은 신민당의 안심을 불허했었다.

득표수는 맥도날드(신민) 10,966표, 워딩턴(무소속) 8,959표, 패찌스(보수) 4,999표, 데이빗·오코너(자유) 2,734표였다.

선거 최종결과가 발표된 직후 차점자였던 워딩턴의 지지자들은 브로드뷰·애비뉴의 돈·홀에 모여 열기띤 자축파티를 가졌다.

연봉 $6만짜리 의석을 워딩턴씨는 이자리에서 "패배했다고 생각지않는다. 자유당도 보수당도 부숴뜨렸다"고 말했다. 거침없이 트루도를 공박해온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보수당당수 조·클락과도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여왔었다.

브로드뷰지역은 밥·뢰가 온타리오주 신민당수가 되기 위해 연방의석을 포기함으로써 공석이 됐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참패한 것은 트루도가 이끄는 자유당. 1980년 총선이후 있는 5번의 선거에서 자유당은 한석도 얻지 못했다.

새 연방의석은 자유당 146, 보수당 102, 신민당 33, 무소속 1이다.

◆선거결과가 발표되자 열렬한 지지자로 부터 감격적인 포옹과 키스를 받고있는 신민당의 린·맥도날드씨(42세·사회사업가), 오른쪽은 연봉 6만달러의 의석은 못얻었지만 트루도(자유당)와 클락(보수당)을 눌러 이겼다고 기뻐하는 무소속의 피터·워딩턴씨(토론토·선 편집장).

82 월드 시리즈 첫날
타선폭발10: 0

(세인트·루이스)아메리칸리그팀 타율 1위를 자랑하는 밀워키·브루어스는 17안타를 터트리며 세인트·루이스 투수진 4명에 맹폭 10:0 대승을 거두었다.

이곳 부쉬·스타디엄에 모인 53,723명의 세인즈·루이스·카디널즈 팬들의 성원에도 불구 카디널즈는 3안타의 졸공을 보여 1점도 못얻었다. 7전4선승제로 벌어지는 '82월드시리즈는 13일 세인트·루이스에서 2차전을 가진후 15일부터는 장소를 밀워키로 옮긴다.

밀워키의 맹폭에도 불구 세인트·루이스의 奀스름오·스미스는 다이빙캐치등 멋진 수비를 보여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국어 대표선출
모국어교육 자문위

토론토시의 모국어교육 자문위원회의 한국어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오는 23일 오후3시 교육센터(155 College St.) 6층에서 열린다.

토론토시교육위원회에서는 지역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모국어프로그램에 의해 주 2시간반의 한글교육을 운영하며, 교과정, 교원배치, 예산등에 관해서는 모국어교육 자문위원회가 자문하도록 되어있다.

이 위원회는 토론토에 있는 거의 모든 민족사회에서 전출된 대표로 구성되며 대표의 임기는 2년.

후보자 자격은 1)한국계 캐나다인이거나 한글교실에 자녀가 등록되어 있는 자, 2)메트로·토론토내의 거주자이며 토론토시교육위원회의 피고용자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598－4931(ext. 346).

윤보선 전대통령
미국및 유럽여행

서울(13일=연합)전 대통령 윤보선(85)씨가 5주간의 미국및 유럽여행을 위해 15일 서울을 떠날 예정이라고 윤씨 측근이 13일 밝혔다.

1960년8월부터 62년3월까지 대통령을 지낸 윤씨의 이번 여행에 공덕귀여사, 장남 상구씨와 만한당소속의 윤기대의원이 동행한다.

윤씨는 유럽여행중 영국을 방문, 모교인 에딘버러대학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1970년도에 개인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래, 윤씨는 한번도 해외에 나들이 해 본일이 없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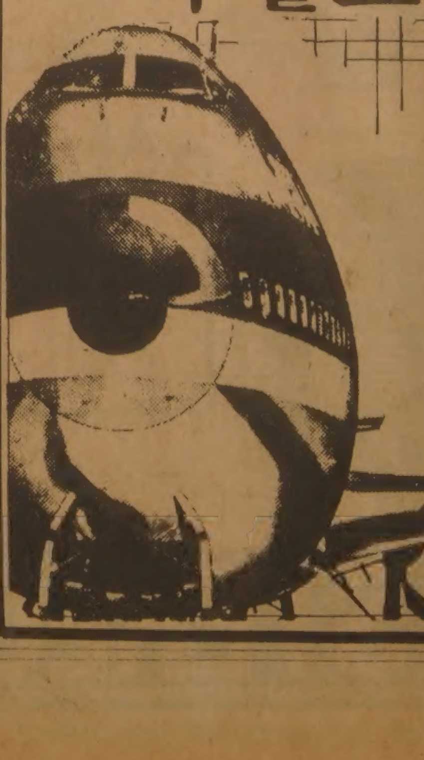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CANADA SAVINGS BOND는 언제나 현금으로 찾을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이는 매년 가을에 한번씩 발행되며, 작년에는 주문이 폭주하여 마감일을 앞당겼읍니다. 저희는 이의 구입에 일체의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고 모든 문의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개업인사
한인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블루어상가(한국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OPEN하여 한인교포여러분들을 성심 성의껏 봉사코자 하오니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변호사 ——
RALPH M. LEVINE B.A.
(BARRISTER AND SOLICITOR)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 : 533－8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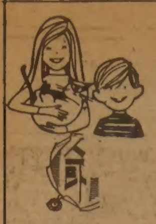
특별요금으로 모십니다!

여러분의 便安하고
즐거운 旅行을 위해
저희가 있읍니다
최 동 주
535-6004
535 8801
서울여행사
IATA
631 BLOOR ST. W
SEOUL TRAVEL

어린이 스케이트및
SKI BOOTS
TRADE- IN

매년마다 여러분 자녀에게 스케이트를 새로사 줄 필요가 없읍니다.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발 싸이즈는 항상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오셔서 다시 바꿀수 있도록 각종 다량의 스케이트를준비했읍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하십시오.
이건영 올림
BRANDON SPORTS
337 Bloor St. W.
(연합교회 건너편)
☎ : 598－3732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2년연승의 5살 이연정양 웅변에는 12살 정두연군

= 제2회 우리말 잘하기대회 =

다섯살 어린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등, 2년연승의 "우리말 잘하기" 선수로 뽑힌 문화잔치가 연휴인 지난 주말 조촐히 치러졌다.

한·카 청소년문화협회·토론토라이온즈클럽 공동주최 제2회 "우리말 잘하기 대회"가 지난 10일 하오5~9시 온타리오교육회관(252 Bloor St. W. Tor.)에서 10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15명의 어린이 출전으로 거행되었다.

최하 4살부터 13살까지의 어린이들은 울긋불긋한 한복차림, 양장등 다양한 나들이옷으로 차려입고, 부모 할머니·할아버지들과 손잡고 입장, 최선을 다해 한글실력을 겨루었다.

이날 대회에 앞서 한국교육영화 「하얀 미소」 관람이 있었다.

이인용씨 사회로 시작된 「우리말 잘하기대회」는 서준경씨(라이온즈클럽 회장)의 "우리말을 어린이들에게 깨우치고, 보존·발전시키는 일의 중요성" 강조의 개회사가 있었다.

이어 심사위원(이석현·윤여경·오정숙·송순태) 소개후 이석현 심사위원장이 나와 심사기준 소개를 했다.

대회참가 신청자 25명중 추수감사절 연휴탓인지, 이날 우리말 잘하기에 14명, 웅변에 1명만 참가했다.

심사위원들은 1)주안점(테마와 내용), 2)언어능력(해득및 구사력), 3)표현력(설득력·제스추어), 4)반응도에 나이 참작, 어린이들의 언어능력과 재치를 채점해 나갔다.

열살 넘은 어린이 여러명이 원고를 들고 나와 간신히 읽어 나가는가 하면 대여섯살 꼬마가 맨손으로 나와 똑똑하고 유창하게 우리말 이야기를 하여 청중들이 우렁찬 박수를 보냈다.

13번 이애디(5세) 어린이는 대사를 외워 가지고 나와 첫머리는 멋있게 나왔으나 뒤를 이을 얘기를 잊어버려 안타까이 애쓰다가 할아버지가 나와 데리고 들어가려 하자, 계속 버치고 선채 생각해 내느라고 고심하여 미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오미샤, 이연정등 어린이는 이야기끝에 노래를 곁들여 우리말 실력의 다양함을 보여주었고, 이숍우화의 「토끼와 거북의 경주」, 우리 옛 얘기 「심청전」을 예화로 든 어린이도 있었다.

가장 나이 어린 이인회 어린이는 애티나는 재치로 인기를 끌었다.

웅변에 단독출마한 정두연(12세) 어린이는 강조점 등 제스추어는 좀 약했으나 자연스런 표정·동작과 유창한 우리말 구사로 박수를 많이 받았으나, 주제 "우리말을 배워야할 이유" 보다 애국심 강조에 치우친 감이 있었다.

경연이 끝난 뒤, 총평에서 이심사위원장은, 1)원고를 들고 나와 읽는 것은 독서(낭독)대회가 되고 말아, 읽기에 정신이 팔려 표정, 동작이 따르지 못한 연습부족이니, 감점이 됐으며, 2)어른이 만들어 준 어려운 용어나 내용을 연사(어린이)가 자기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한 서툴음을 지적했다.

「웅변부」의 정두연군이 한국문교부장관 상장과 트로피및 부상을 탔다.

「우리말 잘하기」에서는 작년 1등이었던 5살 어린이 이연정양이 역시 문교부장관 상장과 트로피, 부상을 탔다.

2등은 송하정(12세)양, 3등 오미샤양(5세), 장려상 이길원(6세), 이비비안(11세)양이 각각 입상했다.

이날 영예의 1등 정두연군은 정기웅씨(상업)의 장남으로 쇼햄한글학교 7년생이고, 이연정양은 무역상 이인수씨의 장녀로 노스욕 한글학교 1년생이다.

◆웅변1등 정두연군

◆우리말1등 이연정양

◆2년연승의 꼬마선수 이연정양(5세)의 우리말 자랑(오른쪽은 이인용 한카청소년협회장)

토론토의 이모저모

유명한 프랑스 음식점 "나폴레옹"

●식 당

토론토에는 각양각색의 에티닉·콤뮤니티가 모여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음식점부터 월남음식점까지 각가지 음식점이 즐비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이태리 음식점과 중국음식점이다.

이태리음식: 이태리음식점으로 가장 알려진 곳은 890 윌슨·애비뉴에 위치한 Mastro's와 692 마운트·플레전트·로드에 위치한 Pronto Ristorante. 이외에도 284 리치몬드·스트릿·이스트에 위치한 Errol's와 25 웰 스리·스트릿·이스트에 위치한 Avanti도 손꼽을만 하다.

집에서 만든 파스타(달걀을 섞은 가루반죽을 원료로 한 이태리 요리)를 즐기려면 다운타운보다는 변두리로 가는것이 좋을 것이다. 2201 핀치·애비뉴·웨스트에 있는 Rosa's Place Restaurant and Tavern과 4800 던다스·스트릿·웨스트에 위치한 Pinocchio Dining Lounge는 파스타로 유명하다.

중국음식: 토론토내 중국음식점은 무려 600개나 된다. 중국음식점을 찾으려면 던다스·스트릿과 체스터낫·스트릿에 위치한 옛 차이나타운으로 가도 무방하겠으나 차이나타운이 다른곳으로 계속 번져, 음식점도 역시 이외에도 여러곳에 흩어져 있다.

훌륭한 중국음식점은 역시 던다스와 스파디이너·애비뉴에 많이 있으며 이곳에서 동쪽으로 브로드뷰·에비뉴를 따라 제라드·스트릿과 던다스·스트릿 사이에도 즐비하다. 이외에 지금은 중심을 벗어난 외각지대에도 여러곳에서 중국음식점을 찾아 볼수있다.

해산물 : 애비뉴·로드와 데번포트·로드의 코너에 위치한 Joso's가 해산물요리로는 가장 정평이 있는 것으로 알려있다.

이외에도 수준높은 해산물 전문식당으로 처치·스트릿에 위치한 Auenelles이 있으나 불란서 스타일로 맛은 좋으나 비싼것이 흠이라고 할가.

불란서식당 : 토론토에는 특별히 이름있는 불란서식당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랜빌·스트릿에 위치한 Napoleon은 분위와 음식맛에 있어 최상이라고 평하는 미식가들이 많다.

이외에도 아델레이드·스트릿·웨스트에 있는 Winston's와 욕빌·애비뉴의 포·시즌호텔에 있는 Truffles는 굉장히 비싼 불란서식당이며 자가용운전수가 식당문 앞에서 내려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곳에서는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들 한다.

호텔음식 : 호텔음식으로 이름난곳은 영·스트릿의 웨스트버리호텔의 Creighton's와 하버·캐슬·힐튼의 Chateauneuf.

선데이·브런치 : 브런치(brunch)는 breakfast와 lunch의 합성어로 아침과 점심 겸 먹는 식사를 말하며 북미에서는 일요일에 brunch를 먹는것이 제도화되는 느낌이다.

브런치로서 이름있는곳은 딕슨·로드의 공항로에 위치한 브리스톨·프레이스 호텔의 다이닝·룸과 욕·스트릿에 위치한 Movenpick Restaurant이다.

일본음식점 : 토론토에는 10여개 이상의 생선초밥을 전문으로 하는 일식점이 있으며 이중에 널리 알려진 곳은 브로아·스트릿·이스트에 위치한 Furisoto, 컴버랜드·스트릿의 Shogun, 에글링톤·에비뉴·웨스트의 Sasaya등이 있다.

●종교

메트로·토론토내에는 2,000개이상의 교회에 78종파가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 있다.

신도수는 천주교(1백만명), 유대교(13만), 영국성공회(100,000만), 연합교(7만), 장로교(20,100), 침례교(11,500)등이다.

주요 종파별 대표적 교회는 다음과 같다.

천주교 : St. Michael's Cathedral(200 처치·스트릿. 전화 : 304-0234)

성공회 : St. James Cathedral(65 처치·스트릿. 전화 : 364-7865)

장로교 : St. Andrews(75 심코·스트릿. 전화 : 593-5600)

연합교 : Timothy Eaton Memorial(230 세인트·크리어·에비뉴·웨스트 전화 : 925-5977)

침례교 : Yorkminster Park Baptist(1585 영·스트릿 전화 : 922-1167)

복음교 : The People's Church(374 쉐퍼드·애비뉴·이스트 전화 : 222-3341)

유대교 : Conservative : Beth Tzedec Synagogue(1700 베드스트·스트릿 전화 : 781-3511)

개혁신교 : Holly Blossom Temple(1950 베드스트·스트릿 전화 : 781-9185)

회탑정교회 : Shaarei Shomayim(470 글렌케른·에비뉴 전화 : 789-3213) 끝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복수의 사나이 <86>

얼굴없는 死者 ⑩

이잡듯 집집마다 세번씩 수색했으나…

「한간 사선이 그어진 지역을 철저히 수색해! 범인 아니면 괴상자의 집이 그 지역 안에 있을 거야.」

경찰은 그 지역을 저선지대라고 불렀다.

즉시 저선지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전개되었다.

경찰은 가가호호를 샅샅이 뒤지면서 이 잡듯 뒤져 나갔다. 지난 12월 사이에 그 지역에서 이사간 세대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조사가 진행되었다.

한번씩 뒤지는 것으로 수색을 끝내지는 않았다. 단진이 훑고가자 이번에 나타나서 새로운 각도에서 수색을 계속해 나갔다.

저선지대의 각가정은 세번씩 경찰의 방문을 받았다. 수색이 완전히 끝난것은 12월24일 오후였다. 거리는 크리스머스이브의 열기로 술렁거리고 있었다.

저선지대의 [illegible] 중심으로 다시 반경 1.5킬로의 원이 그려졌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색이 다시 전개 되었다.

연말비상까지 겹쳐 경찰은 정신없이 바빴다. 모두가 눈뜰이 날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밤의 정막과 함께 눈이 내리고 있었다. 크리스머스이브에 어울리는 함박눈이었다.

그들은 긴가에 멍거니 서있었다.

헤드라이트를 밝힌 차들이 차도 위를 느릿느릿 굴러가고 있었다. 차도 위에는 어느새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불빛 사이로 솜처럼 부드러운 눈송이들이 무수히 춤을 추고 있는것이 보였다.

크리스머스 캐럴이 여기저기서 경쟁이나 하듯 들려오고 있었다.

「가서 저녁이나 먹지.」

나이 든 사나이가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다.

「네, 그러죠.」

젊은 사나이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집어던졌다.

朴男 그림

그들은 「설렁탕」이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조그마한 식당이었다. 노동자 사인의 사내들 세명이 난로 가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들과 좀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앉았다.

「설렁탕하고 소주 한병 주시오.」

나이 든 사나이가 말했다. 잠시 후 조그마한 얼굴은 [illegible] 되고 있었다. 작은 눈은 거의 감다시피 하고 있었다.

모든것에 흥미를 잃은 황혼기의 사나이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그가 메마른 모습인데 반해 젊은 사나이는 뚱뚱하고 둥글둥글한 얼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왕방울 같은 눈과 주먹코, 그리고 두터운 입술이 육감적인 인상을 짙게 하고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설렁탕 한그릇을 다 비우고 손등으로 입술을 쓱 문질렀다. 술병은 어느새 다비어있었다.

「한병 더하죠.」

젊은 사나이는 나이 든 사나이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술 한병을 더 시켰다.

그는 센터에서 처음 회의가 열리던 맨 맏석에 앉아 전방진 정도로 발언을 많이 한 여수에서 올라온 수사관이었다. 나이 든 사나이 역시 젊은 사나이와 함께 여수에서 파견차 [illegible] 을 가지고 올라온 형사였다.

진학안내 세미나

교육연구회·KUSA등 주최

이민하였으므로서 고교 12~13학년이 되면 진학문제, 진로 선배와 제능 심각한 당면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의 고민을 풀어주기위해 선배들이 대회의 광장을 마련했다.

한인교육연구회(회장 조성준)·온타리오한인대학생회(KUSA)·상아회의 공동주최, 한인장학재단 후원의 「대학진학 안내 특별세미나」가 오는 23일(토) 상오10시~하오3시 토론토시교육위원회(155 College St. Tor.)에서 열린다.

연제및 강사는 아래와 같다.

1)이민자녀를 위한 특별지도 적응문제 : 밥·스웨[illegible](토론토교육위원장)

2)입학절차 문제 대학생 적응실태 : 베티·이스[illegible](토론토대학 연락관)

3)KUSA및 재학중 온타리오주 한인대학생·클럽활동 취지 : 정태교·이명희(KUSA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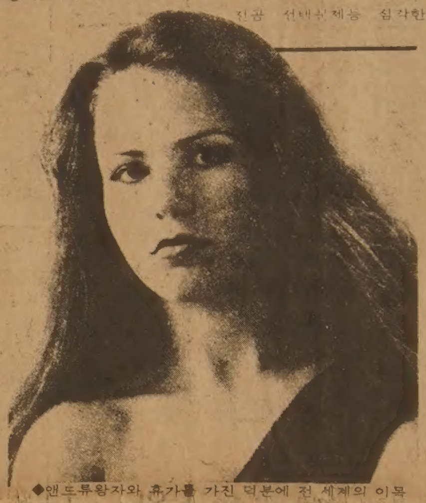
4)온타리오주내 각 대학 특징소개 : 이인·크리스틴유·조성용·이명희

◆위크샵(토의및 질의응답)

1)인문계 : 조성용·김승배·김승희·이명희·강태진·김인기·최진영

2)이공계 : 정태교·김정호·산인호·이진택·이재경·윤오화·김광태·이인

3)의학계 : 김미혜·이대원



◆앤드류왕자와 휴가를 가진 덕분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끌은 섹스 영화배우 캐시·쿠·스탁양

앤드류 왕자 휴가 단축 귀가

섹스영화에 출연한 여배우와 카리브해안의 머스티섬으로 휴양갔던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왕자가 10일간으로 예정됐던 휴가를 단축, 7일만인 12일 귀국했다.

포클랜드 전쟁에 헬리콥터 조종사로 참전했던 앤드류왕자(22)가 연상인 포르노 배우 캐시·쿠·스탁양(25살)과 이모인 마가렛공주의 별장으로 잠적하자 영국의 각 언론은 일주일내내 앤드류의 사진과 쿠·스탁의 벌거벗은 사진을 싣는등 대서특필하여 영국왕실을 곤혹케 했었다.

버킹험궁 대변인은 12일 앤드류왕자의 휴가단축이 왕실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앤드류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못박았다.

놀기 좋아하기로 소문난 앤드류왕자는 『캠브리지 부부』란 가명으로 카리브해안에 잠입하자 각 신문 사진기자들이 이곳에 몰려들어 취재경쟁을 벌였었다.

안중근·류관순 도안 새 우표 2종 발행

체신부는 역사적 인물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안중근 의사와 류관순 열사 사진을 도안으로 한 보통우표 2종을 8일 발행 (사진)

안의사 도안우표는 200원권, 류열사 도안우표는 100원권이다.

〈특별기고〉

국경선을 넘는 한국인

김 춘 희

◆김춘희씨

시간은 9월1일 새벽3시.

"Mrs.최, 커피 한잔 하고 하세요."

이민국 직원의 따듯한 제안이었다.

"아니예요. 생각이 없어요."

밤새도록 진행되는 취조심문의 통역, 이 가난한 동족을 앞에 놓고 쓴 커피 한잔을 마시는 것도 죄스럽다. 바깥은 천둥이 몹시 치고, 비가 억수로 내린다.

나는 문득 대학시절에 읊던 베르렌느의 시 귀절을 생각해 낸다.

국경선에 비내리듯 "내 마음에도 눈물 비 내리네"

아! 그때의 울분, 붙들린 동족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싶던 그 마음을 어찌 동족애라고 간단히 표현해 버릴 수 있을까?

도대체 한국의 외무부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운동화나 스웨터의 수출 이전에 인구수출이 앞서야 하지 않는가? 농업이민, 수산이민, 산림이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기야 농업이민이 이곳 캐나다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이민이라니! 농업투자 이민! 농민들이 수십만달러씩 투자하고 이민 올 부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집단이민,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어떤 농업집단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각자나 위정자의 희생과 배려가 앞서야 한다. 그리고 어느분의 말씀처럼 서울에, 혹은 어떤 농업집단 속에 「이민학교」도 세워야 한다. 이민법, 언어, 캐나다의 토질, 기후, 북아메리카의 생활등 가르칠 것이 많다.

새벽6시, 조국의 저녁 땅거미가 깔리는 이 시간, 나는 밝게 개인 동녘 하늘의 분꽃처럼 빨간 해를 바라보며 집으로 향하는 15번 국도를 달리는 차 속에서 비통사몽 기도를 한다.

"Mr. Rivard, 용서하세요. 나는 좀 울이겠어요."

"염려말아요. Mrs. 최. 제 운전솜씨가 아주 좋으니까 마음놓고 집에 닿을때까지 주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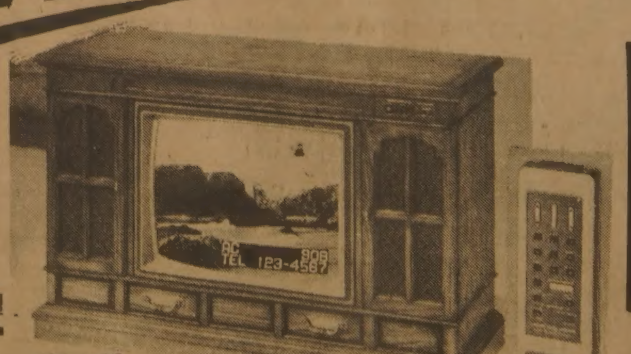
가물가물 감기는 내 눈시울 위를 가난하고 병든 형제들의 얼굴이 스크린에 지나가는 영상처럼 휘휘 스친다. 그리고 체포된 Mr. 김의 목소리가 나의 뒷통수를 치는 것같다.

"아줌마, 나 배고파 죽겠어요. 어제부터 굶었어요. 통역 좀 잘해줘요. 아줌마!"

아련한 꿈속에서 나는 계속 기도를 한 모양이다.

"주여, 저들의 앞날에 배고픔 없애 주소서."

글쓴이, Mrs. 최. 현재 캐나다 콘트리올 공인 번역 통역관 끝



ZENITH 세일

$499

칼라 T.V 20인치 세일

산수이 전축

재고정리

Full Set $899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FINCH AVE W.
HWY 401
745-5555

아카데미 T.V.&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SCARBOROUGH, ONTARIO
282-2820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또 하나의 경제인 조직

"상공인협회" 발족 움직임

한인사회에 또하나의 협회가 발족될 것 같다. 이는 가칭「상공인협회」로서 토론토의 교포실업인들중「무역인협회」내지는「실업인협회」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업주들이 모여 독자적인 협회의 발족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상공인협회」발족의 주역으로는 조병역(준비위원장, 식당주), 이완수(인쇄소 경영)씨등이며, 수개월전부터 태동의 준비작업을 은밀히 착수해 왔으며, 10월중에 발기총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본협회의 차회장단및 이사회의 간부진은 그간 수차의 접촉을 통하여 현재 실업인협회의 정관상 타업종에 대하여 완전히 개방되어 있으며, 한인사회의 보다 건설적인 발전을 위하여, 함께 뭉쳐 발전적이고 성공적인「실업인협회」의 가치 아래 단합함으로써, 한인 교포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가능한한 통합을 위한 설득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한다.

한편 83년도 사업계획에 지금껏 협회자원에서 특별한 배려나 혜택을 지원할 수 없었던 여타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와 정책을 채택할 것을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결의 하였다.

〈알림〉

10월22일의 총회를 앞두고 "1982년도 연차보고서"를 작성 완료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우송하였읍니다.

이는 총회에 임하기 전에 회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파나소닉 밧데리

경품부 프로모션 호조

지난 8월말「실협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파나소닉회사는 12월말까지 3개월간 K.B.A 가게를 상대로 경품부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Rack를 포함, 일정량의 밧데리를 파나소닉에서 구입, 판매하면 복권을 제공하고, 매월말 8개 가게를 추첨하여 계산기 한대씩을 제공하고, 12월말에는 싯가 $1,599.95의 비데오·가셋·레코더 한대를 추첨한다.

관심있는 회원은 협회사무실(533-7923)로 신청하면 파나소닉에서 직접 상점으로 배달한다.

첫 추첨은 10월27일(수)에 협회 사무실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펜트하우스」경품당첨자

6명회원에 시상

「펜트하우스」경품당첨자 총 21명중 6명의 K.B.A. 회원에 대한 시상식이 10월8일 하오3시 협회사무실에서 거행되었다.

당첨자에게는 클록·래디오 1대씩 수여되었으며, 이 자리에는「펜트하우스」의 경리간부 캐시·벤양등 3명의 인터시티 사원도 동석하였다.

당첨된 회원은 아래와 같다.

Victoria Variety 박경덕
Chestnut Hills Variety 장재식
Haddington Variety 송영집
Sinclair Variety 장현수
Donwood Variety 김능식
NewMoon Variety 박만현

◆좌로부터 Dillelo, 김능식, Venn양, 박만현, Meledo제씨.

〈회원기고〉

오 늘

이 명 숙(Denny Variety)

◆이명숙씨

계절의 흐름 속에 속절없이 묻혀온 세월들. 찬바람의 스침을 외면하고 싶은 오늘이 있다. 커다란 짚차의 바퀴처럼 고즈란히 굴러가지 못하는 동요 깊은 삶속에 통증을 못느끼며 오늘도 젖은 땅위를 굴러만 가고있다.

서늘한 대기 속에 오들오들 떨 수 밖에 없는 조그만 나만의 세계에서 한겨울의 하얀 풍요함을 기대하며 철창속의 가느다란 빛을 오늘도 내일도 기다린다.

밝음과 흐림속에 공간을 잴 수 없는 무한한 폭을 하나하나 접어가며 접혀진 삶의 길이를 맞추려 한다.

길이의 폭춤음을 사각형의 맞춤을 기대하는 어린이들의 순박함도 외면한채 아픔을 소리치며 흐르는 세월을 탓해 보기도 한다. 심장까지 젖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떠난 날의 아픔들로 그대로 응고된채 오늘이라는 나날들을 번복하고 있다.

어쩌면 어제가 없는 오늘을 기대하고, 오늘이 없는 내일을 기다리며 사는 연못 속의 연꽃처럼 정지되어 버린 꽃인지도 모른다.

흐름도 없는 연못 속에서 청결함도 간직하지 못한채 그래도 피고 싶은 연꽃의 숙명처럼 꽃의 아름다움을 도도히 과시하며 계절의 바낌을 기다린다.

오색 찬연한 움막 속에서 잿빛을 그리던 어린 시절을 되새기며, 젖은 오늘 하루를 그리고 있는 나 또한 젖어버릴 것같은 초조함에 떨고만 있다.

뿌연 하늘에 습기찬 Rhein 강변의 추억이 없었어도 오늘은 있고야 말 것을 알았더라면 어제의 오늘도 내일의 오늘도 내리는 빗줄기에 묻혀버릴 것을 오늘을 의식하는 젖어버린 나를 향해 소리쳐 본다. Denny Variety 이명숙.

— 협동조합 탄생을 위하여 —

같이 총회에 참석합시다

실업인협회 정기총회가 1주일후로 다가왔다.

10월22일(금) 하오6시 Inn on the Park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지난 한해의 살림살이를 결산하고, 새해의 사업을 설정하는 모임일뿐 아니라, 전회원이 여러해 동안 염원해 왔고, 또한 회원 각자의 이익과 직결되는「협동조합」출범의 모체가 되는 정관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결정되는 협동조합의 정관이 곧 내년초에 문을 열게 될 조합의 방향설정이 될 것이므로 바쁜 손을 하루 저녁 멈**추고,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형태의 조합"을 제시하여, 전체회원에게 이익되는 "우리의 협동조**합"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집행부는 간곡히 바라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올바른 체재의「협동조합」은 회원 각자가 총회에 참여하여 그 모체인 정관을 바로 작성하는데 있으므로 험한 물결을 거뜬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조합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모임에 참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Centennial "D" Room에서 개최되는 총회는 대략 6시부터 1시간 친교를 나누고, 7시에 저녁식사를 한 다음, 8시부터 본회의를 시작하게 된다.

〈회원탐방〉

전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합

장 순 채(코리아타운번영회장)

◆장순채씨

먼저 귀협회의 부단한 노력과 발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역사래야 이제 수삼년, 그러나 성실하고 희생적이었기에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루어 협회뿐 아니라, 우리 교민사회에 〃지도 크게 기여하여 그 공이 평가되고 있는터에 이제「협동조합」이라는 제2의 도약을 향해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니 이는 귀 협회뿐 아니라 우리 전체 교민사회가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라 믿어집니다.

협동이란 말은 곧 힘이 모여진다는 뜻이기에 이는 무궁무진한 발전을 뜻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든 한인업소에도 크게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평가받기에는 그 시기가 빠르고, 또한 그와 같은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자면 여러가지 면으로 부딪쳐야 할 애로와 고초가 따르리라 믿습니다만 집행부를 주축으로 전체회원이 혼연일체만 되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본사업이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함이 아니며, 전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일 것이니 주최측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희생적이어야 할것이며, 회원들 또한 이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건대 날로 번창하는 협회가 되어 협회에서 그치지 말고 전교민사회에도 아낌없는 후원단체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K.B.A. 교환센터

◆(1)Gift Glass Shelf(크롬 finished) 72" × 14" × 2개 2unit
(2)Cart Rack 2 Unit
(3)Gift Island Shelf (4'×4')+(1'×2')+(1'×2') 1 unit
(4)Rack & Glass Shelves 2 unit
(5)Show Case (5') 1 unit 276-5940(김)
◆아이스크림 캐비넷(Wall type)금구함 759-6800(최철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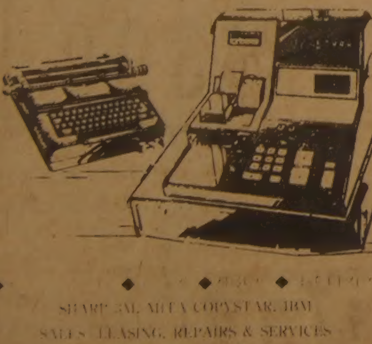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1391 WESTON RD

훼밀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
(Each Case=100 Rolls)
3. NCR S (수동식)



SHARP, SAL, MITA COPYSTAR, IBM
SALES LEASING, REPAIRS & SERVICES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공 고

정기총회소집

본 협회 회칙 제7조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982년도 정기총회를 소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일시 : 1982년10월22일(금) 하오6시
장소 : Inn on the Park Hotel, Centennial "D" Room (Leslie & Egliton)
안건 :
- 과년도 사업보고및 결산보고
- 감사보고
-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
- 이사선출
- 회칙개정
- 협동조합정관 심의 통과
- 기타 토의사항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차선겸

실협 지정
The professional pest controllers.
PCO
Call PCO, to solve your pest problems.
Call : 699-9373
1472 Kingston Road,
Scarborough, Ontario M1N 1R6
P C O Services Ltd. Since 1952

한국일보
국민의建設은建全한新聞

大入 日語선택 3倍급증

전체 17% "高校서 쉽다 誤導"

4年制大 평균競爭率 3·3對1

83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의 6개 외국어과목중에서 일본어를 선택한 수험생이 82학년도에 비해 3배이상으로 급증, 주목을 끌고있다.

9일 문교부가 발표한 대입학력고사 지원상황 분석에 의하면 82학년도에는 3만3천4백45명이 지원, 전체지원자중 5·7%가 일본어과를 선택했었는데 83학년도에는 3배이상인 11만6천5백40명으로 전체지원자(67만4천1백93명)의 17·3%를 차지한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독어·불어·중국어·스페인어·일어중 택일하도록되어있는 대입학력고사의 외국어과목은 지난해 81학년도까지만해도 대부분의 응시자가 영어를 선택했고 1%가량의 나머지 응시자가 독·불·일·중국어의순으로 선택했었다. 그러나 금년들어 처음으로 5·?%로 그 증가폭이 뛰었다가 다시이번에는 무려17% 이상이나 늘어난것.

문교부는 이미지난7월 이같은 수험생들의 일본어선호 경향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대입학력고사 전형방법을 발표하면서 일본어선택과목의 난이도를 영어등 다른외국어과목과 균형을 이루게할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했었다.

이에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일본어가 다른외국어에 비해 학습과 득점면에서 비교적유리하다는 인식이있고 이런인식아래 일선고등학교에서 대학의 합격률을 높이기위해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때문이라고 설명, 고등학교의 외국어교육이 빗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글학회도 이날 한글날 기념일을 맞아 『일본어를 공부하는 수험생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는다』고 전제, 『이는 일본에 대한 우리의 정신자세가 과거로 돌아가는 현상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어를 외국어로 택하게 하는것은 이율배반이다. 외국어과목에서 일본어를 빼고 정상적인 외국어교육이 이뤄지도록 조처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문교부가 집계한 83학년도 대입학력고사지원자는 82학년도의 59만1천7백27명에 비해 13·9%인 8만2천4백64명이 늘어났다.

이에따라 83학년도 4년제 대학(모집인원 20만2천4백60명)의 평균경쟁률은 3·3대1(지난해 3대1)에 육박, 대학의 문이 좁아졌으며 전문대, 교육대를 포함한 전체대학 경쟁률(모집인원 32만8천5백59명)도 2·1대1로 82학년도의 1·8대1보다 높아질

◇외국어선택 분포

과목 / 구분	83학년도 지원자	82학년도 지원자
英語	515,322(76·4%)	538,381(91%)
獨語	30,182(4·4〃)	13,817(2·3〃)
佛語	7,984(1·2〃)	4,764(0·8〃)
中語	4,110(0·6〃)	1,320(0·2〃)
日語	116,540(17·3〃)	33,445(5·7〃)
西班牙語	55(0·1〃)	—
계	674,193(100%)	591,727(100%)

社會漫評

慘禍부른「人命輕視」

◇사고가난 쌍굴왼쪽 하행선. 5㎥의 바위가 중앙부에 무너져 앉아있고 터널 안쪽에는 트럭이 철제빔에 깔린채 난장판이 돼버렸다. 낙반암 제거등 복구는 10시간만인 9일상오 6시에야 끝났다.

또 무너졌다

地下鐵공사장서 버팀틀빼다 落磐

4명壓死 4명중상 慘事

市직원·漢陽기술理事등 6명立件

瑞草洞3號線

8일 하오8시30분께 서울江南區瑞草洞山34 지하철3호선 3 0의3 공구(시공자 주식회사漢陽·대표 裵鍾烈) 지하터널 공사장에서 강재지보공(鋼材支保工)아치형 철제버팀틀 제거작업중 바위더미가 무너져내려 인부 禹漢准씨(46·착암공·서울東大門區上鳳洞190의70)등 4명이 압사하고 許榮錫씨(40·仁川市北區富平洞760)등 4명이 크게 다쳐 順天鄕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나뉘어 치료를 받고있다.

경찰은 사고현장이 낙반사고의 위험이 큰데도 숏크리팅(Shot Creting·콘크리트뿜어붙이기), 낙반방지망 시설은 물론 바위못도 박지않은채 규격이 맞지않는 지보공제거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것으로 확인, 현장소장 白光善씨(41) 공사과장 대리 鄭眞九씨(31)등 2명을 업무상 중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한편 시공회사인 주식회사漢陽의 기술이사 韓相烈씨(42)작업반 십장 朴萬信씨(35)조장 許榮錫씨(40)서울시 지하철공사 감독관 李均範씨등 4명을 같은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사고는 지난 4월8일 발생한 서울 무악재 지하철 붕괴사고후 1백93일만에, 지난 7월1일의 西小門 지하철사고후 1백일만에 발생한 3번째 지하철 참사이다.

사망자및 부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망 ▲朴東臣씨(24·서울九老區九老6洞130의27) ▲黃仁龍씨(37·서울道峰區彌阿3洞211의25) ▲魯成永씨(35·서울江南區方背1洞867의1) ▲禹漢准씨(46·서울東大門區上鳳洞190의70)

◇부상자 ▲許榮錫씨(40·仁川市北區富平洞760) ▲李承南씨(33·서울西大門區峴底洞28의2) ▲吳炳龍씨(27·서울東大門區忘憂1洞146의32) ▲金榮煥씨(27·서울東大門區忘憂1洞185)

公害업체 團地化추진

染色·도금·鑄物등 防止시설도 集團化

정부는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해 공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할뿐아니라 기술이 취약한 도금, 염색, 주물업체를 집단화시켜 집중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폐수처리시설도 공동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9일 상공부에 의하면 염색전문단지 3개소, 주물전문단지 4개소, 鍍金전문단지 4개소등을 단계적으로 조성, 각지에 산재한 관련업체를 전문단지로 점차 이주시켜나가기로 했다.

업종별단지조성계획을 보면 염색은 22만1천평에 달하는 大邱비산염색단지를 조성, 현재 82개업체를 입주시켰다. 이어 12만5천평규모의 半月염색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42개업체를 입주시키기로 했으며 釜山에도 추가로 10만평규모의 전문염색단지를 마련, 30개업체를 유치하기로 했다.

鍍金분야는 1만2천평규모의 半月鍍金단지를 조성, 28개업체를 입주시킨데이어 4천평규모의 京仁도금단지를 조성중에있으며 앞으로 2개단지를 더조성할계획이다.

버마外相 來韓

우 칫 라잉 버마外相이 李範錫외무장관 초청으로 9일 상오 來韓했다.

우 칫 라잉 외상은 11일 李장관과 韓·버마외상회담을갖고 양국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방안을 협의한다.

우 칫 라잉 외상은 13일까지 체한하는동안 全斗煥대통령과 金相浹국무총리를 예방하고 浦項製鐵과 現代重工業등 산업시설도 시찰한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9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在美 LA 僑民 일동 6천5백달러

뉴욕 82世博 한국관일동 8백64달러

국악인 吳甲順씨 50만원

同樂會 金榮洙회장 20만원

(株)栗田 임직원들 12만원

▲국악인 吳甲順씨=50만원 [日刊스포츠접수]
▲서울同樂會회장 金榮洙씨 회원一同=20만원
▲(株)栗田 사장 金運河씨外 임직원一同=12만3천원
▲대한전선(株) 국가유공자자조회 회장 김철민씨外 회원一同=5만원
▲美8軍 용산게리슨 한인직원一同=6만1천5백원
▲城山1洞 3통주민一同=4만원
▲東大門區面牧6洞27통3반주민一同=3만3천원
▲鍾路區무악동17통2반주민一同=2만6천원
▲江南區瑞草洞잔디음악학원 윤석오군=1만6천2백2원
▲江南區瑞草2洞진흥아파트5동404호 한경자씨=1만원
▲연희2동마을금고=2만2천원
▲서울노량진국교6년 박예현양=5천원 [소년한국접수]
▲서울여의도중1학년 박혜선양=2만원 [〃]
▲서울역촌국교6학년 반용석군=5천원 [〃]
◇한국일보LA지사접수분(2차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1천5백달러
▲노재영씨=1천달러
▲남가주 한인재단이사회(이사장 추부원) 이사一同=5백달러
▲남가주ROTC동지회일동=5백달러
▲박창훈씨(조엔패션대표)=2백달러

소름끼치는 36년간의 일본식민지 시대를 회상해서 조국은 독립기념관 건립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읍니다.
일제의 설움을 같이 당했던 우리는 외국에 산다해서 이 운동을 외면하겠읍니까? 성금을 부탁드립니다.
기 간: 1982년 10월말까지 보낼곳: 토론토한국일보사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화: (416)533-2361
※수표작성(Payable to…)은 The Korea Times앞.
◎폐사는 일정금액이 모이면 서울본사에 송금하며 기증자 명단은 토론토 한국일보및 서울 본지에 게재됩 니다.

"正統性擧論 단호對處"

民正, 野의원 發言싸고 議總

民正黨은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野黨의원들이 제5공화국의 合憲的정통성과 改革의 당위성등을 부인하는등 잇단 문제발언을 重視, 오는13일의원총회를 열어 이에대한 효과적인 대응책과 이로인해 해이되기쉬운 黨소속의원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가다듬는 문제등을 논의할예정이다.

李鍾贊총무는 9일 『우선 소속의원들의 의견을듣고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일체감을 조성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의원총회 소집이유를 밝히고 『의원총회에선 일부野黨의원들의 문제발언외에도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日程의 효과적인 운용방안등에 관해 전체의원들로부터 衆智를 모으게될것』이라고 말했다.

地平線

[illegible]

對美관계 重要

…것으로 보인다.

【北京UPI=聯合】 중공수상趙紫陽은 27일 중공은 소련과의 관계정상화를 희망하고있지만 소련이 세계평화에대한 최대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의 관계개선은 요원한 문제라고 말했다.

趙紫陽은 이날 중공을 방문중인 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과의 2차회담에서 中·蘇 두공산대국간의 관계개선 가능성에관한 스즈끼수상의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해설3면

趙紫陽은 중공의 기본적인 對蘇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미국과 중공 양국이 확고한 對蘇입장을 공유하고 있기때문에 중공은 강력한 미·중공관계유지를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직 감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가공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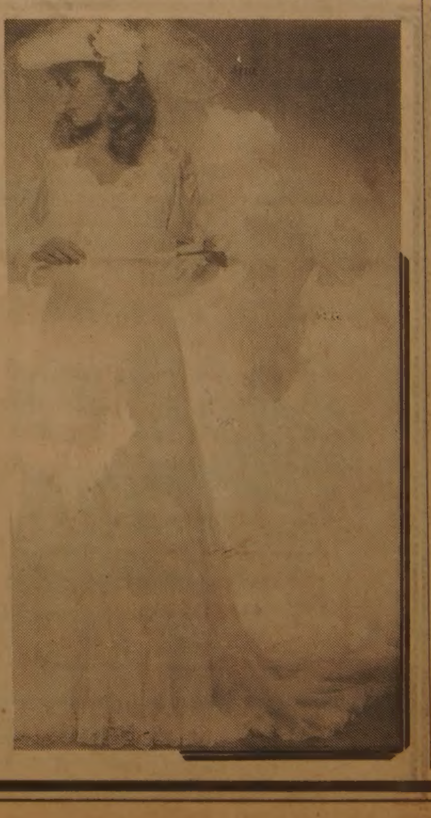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오프닝리셉션
10월16일(금)
오후 6시

하늘 높푸르고, 단풍의 낭만이 가득한 성숙의 계절, 여러분을 모시고 하룻밤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부디 오시어 뜻있는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아·원 드림

Eglinton
Bayview
Millwood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아침 한때에

國會는 원래 시끄러워야

庶民생활 막힌곳 시원히 뚫어줬으면

韓相範 〈東國大 法大교수〉

一方通行은 금물

올해 정기국회가 한창이다. 나라의살림살이를 꾸려가는 民意의 殿堂으로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정도인가하는 점을 따져서 정치의氣象圖를 알아볼수 있다고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일이다.

한때 국회가 너무 제구실을 다하지못해서 選良은 집에서『애나 보아라』하고 빈정되어『애보기 의원』이란 숱은 딱지가 붙여졌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과연 지금은 그 때보다 얼마나 달라졌느냐 할때에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러한 것을 따지기 앞서서 한가지 분명히 밝히고지나갈 일이 있다. 그것은 시끄러운 곳이어야하는것이 국회의 生理라고 한는점이다. 원래 국회가 나라 일을 두고 입장을 달리하는 黨派가 서로 공개된자리에서 말로써 是非를 가리고 다투면서일을 마무리 하는곳이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고 모범학생처럼 얌전하기만 하면 그것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말로써 말이 많으니말말을까 하노란』하는 식이 되면 그것은 이미 국회는 아니다.

市井의 이름없는 사람들이 안타까와하고 궁금해 하며 또는 분하게 여기는 일을 똑바로 드러내어 따져서 나라 일을 바로 꾸려가자고 하는 것이 국회이다. 그러므로 의원으로서의 가장 소중한 조건은 열성과 함께 통찰력이고 그에 따른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줄아는 책임 윤리이다. 잘못된 일일수록 드러내서 따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公的인 일을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고, 아니 그 보다 바른 길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 새삼스럽게 市井의 이름없는 사람들이 국회에 특별한 妙策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좀더 제구실을 국회답게 해나가면 그것으로 흐뭇하다고 생각을 가지게 될것이다.

국회가 다루는 나라살림살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豫算과 立法이다. 예산만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稅金과 직접으로 관계가있는 것이므로 국회로서는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솔직하게말해 나라살림살이에서 돈 씀씀이 너무나많다. 그것이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는 異議가 없지만 결국 우리국민들의 호주머니나 월급봉투와 관계되는 일이기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살펴서 다루어질 일이라고 한는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일이없으리라고본다. 솔직하게 말해서 서민이살아가는데 있어서 세금문제는 아주 고달픈 일의 하나이다. 그러한 이름없고 말없는 庶民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세금의 문제를 따져달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일을한다. 으레껏 정기국회에는 法案이 무더기로 상정·통과되어 왔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근자에는 법안심의에 무더기처리방식을 삼가고자 하고 있는 일은좋은 점이라고 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국민생활에 중대한 관계가있는 법률안들이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입법부라고 하면서도 현대국가의 국회는 입법면에서 듀베르제의 말에 따르면「법률登記所」로 되어가는 점도 부정할수는 없는 현실이기도하다.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비중이 커진다고 한는 것을 외면할 일은 아니다.

人氣발언 止揚을

그리고 야당의 소수 의견도 그합리적인 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것이 다수의견속에 수용된다고 하는 면도 하나의 관례로 세워져야 하겠다. 그렇지 못하고 정부 여당의 다수 의견이 일방통행으로 먹히는 요식 절차가 국회의 심의라고한다면 少數者나 야당은 할말이나속시원하게 하고 또신문 보도를 의식한人氣발언, 이를테면 선전 효과를 주로노려 안될것을 뻔히알면서 무리한것을 요구하게되고 되지않을일을 물고 늘어지게된다. 그렇게되면 토론또는 심의과정이라고 하는것이반대 黨派에대한 공세와 자기黨派의 선전에만 그치고 토론또는 심의다운것이 없어진다.

이번 국회에서도 이른바 政治議案이 열띤 논쟁의 초점이되고있다. 各級선거법개정, 정치활동 被규제자 解禁, 국회법, 언론기본법등 世稱 뜨거운 이슈들에 대해 야당은 반드시 可否를짚고넘어가야겠다는것이고 정부여당으로서는 時機尙早와 不可論을내세우고있는듯하다.

그러나 어떻게보면 政治議案이라고해서 국회가 소극적이거나 외면할필요는 없을것같다. 국회란 중요한면한 國政현안 특히 國益과民益에 직결되는 議案들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야한다는 점을 與野모두 깊이 생각해야될것이다.

뜨거운 議案들을 단지 自黨의 PR내지 示威用으로 떠들썩하게 내세우는것은 말할것도없고 마치 터부인양 멀리하려는 자세도 일단 반성해야할것같다.

따라서 이들문제에 대해 國會는 토론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의해 처리하는成熟度를 보여줄 필요가있다하겠다.

국회에서 정부측의 답변을 매번 보아오면서 나는 미국의 聽聞절차를 생각해본다. 행정부 官吏라고 해도 宣誓를 시키고 증언을 하는 자세로 답변을 하도록 하는 점도 치밀한 점이고, 또 한편으로 질문하는 측이나 답변하는측이 심문과 반대심문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한치도 어김이 없게 하려고 문제점에 파고드는 점은 英美의 議事기술 또는 법정기술에서 발달한것이라는 점을 알수 있다. 어떤 事案에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언제 어떠한 근거에따라 어떻게 처리된다고 한는것을 말하는 것이어야지 일이 깨끗하게 매듭지어질수 있고, 나아가서 그책임소재가 분명해질것이라고 본다. 당장 닥친 어려운 자리뗌을 하는 식으로『조사해서 선처하겠다』느니,『연구, 검토중에 있다』느니, 또는『대책을 강구중이다』하는 식의 답변으로는 문제의 제기에 그치는것이 되기쉽다.

成熟度 보여줘야

『조사해서 선처하겠다』고 하면 언제 조사를 어떻게 하며 그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하겠는가 하는 것이 분명치 않다.『연구, 검토중에 있다』고 하면 어떠한 근거나 자료에 따라 언제까지 연구해서 무엇을 어찌하겠다는가 하는 것이 전혀 애매하게 될수도 있다. 또『대책을 강구 중이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代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고 있는가하는 점을 알수 없게 될수도 있다. 물론 근자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할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화의 기술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게끔 보다 세련되도록 힘쓸 여지가 아직도 많다고 본다.

지금 헌법으로 볼 때에도 국회가 활용할 여전만 적절하게 마련하여 밀고 나가면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두루 알고 있듯이 國政전반의조사권을 발동할수는 없지만, 개별적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언제이고 國政조사권을 행사할수 있다.

이 國政조사 절차에서는 증인을 소환해 선서를 시키고 심문할수 있다. 여기서 정부를 곧탕먹이자고하는 말이 아니라, 국회가 제구실을 하고자 하면 정확하게 알아서 처리를 할 중대 事業에 대해서는 국회가 가진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하는것이 아주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회가 있다고 하는것 자체가 우선 중요하고 뜻있는 일이라고 하는 점이다.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말도 들리고, 또 함부로 말하길 꺼려온 일도 의원들 발언을 통해서 들어볼수 있다고 하는점을 다들 생각할것이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도 국회가 할일이 있다고 하겠다.

누가 뭐라고 할 지라도 우리 국회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인 제 모습이기도하다. 문제는 아주 썩 잘나지 못해도 제 모습으로서 우리 국회를 바로 가꾸어 가는 일이다.

해마다 맞이하는 정기국회라고 해도 시정의 서민은 해마다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싶어하는 점을 國政에 책임을 진는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 기능은 토론·심의에 있는데 토론·심의란는 절차는 번거롭고 지리하고 또 서로 自制를 요하는 과정속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議事기술이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 나라 살림에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가장 시급한 조처를 강구하랴, 서로가 글자 그대로 民主다운 民主를 하도록 응어리를 푸는 일을 어떻게 한는가 등 할일이 태산같다. 이 어려운 일을 국회가 모두 떠맡아 해가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국회나름의 할일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걸어 본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금 다져 둘 일은 국회에 야당이 없으면「民主」가 아니고 또국회에서 야당이 제구실을 할수없으면「民主化」가 못된다고 하는 평범한 사실이다. 집권측이나 야당측이나 이 점은서로가 알아야 하고 또 국민이 우리 나라 살림을 걱정하고 북돋우려는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 것이다.

「바르샤바의 봄」은 갔는가

바웬사등 核心지도자軟禁 사실상 分解상태

85년에나 재허용「自由留保」속 봄 기다릴듯

폴란드계엄당국의 독립자유노조 불법화결정은 시체를 매장하는 형식절차일 뿐이다.

이 폴란드정부는 한때 회원이 1천만에이른 자유노조의 노도와같은 기세에 눌려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보이는듯했다. 「바르샤바의 봄」이 다가오는듯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81년12월13일 폴란드 공산당제1서기겸 수상 야루젤스키장군은 계엄령을 선포, 폴란드국민의 꿈을 앗아갔다.

이 자유노조의 모든활동은 정지됐고, 노조지도자들에대한 검거선풍이 불어닥쳤다.

「바르샤바의봄」기운은 불과 16개월로 짧은 종막을 고했다. 계엄선포이후 자유노조는 사실상 죽은몸이었다. 레흐·바웬사를포함한 2천여명의 노조지도자들이 계엄직후 체포됐고 이중 6백여명이 아직껏 풀려나지못하고있다.

지난8월 자유노조탄생 2주년째 전국적인 시위가 있었지만 군사정권의 힘앞에서 봄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계엄선포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폴란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했다.

또 미국은 계엄을 사주한 소련에대해서도 경제제재를 가해달라고 동맹국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실효가 없었다. 對蘇가스관장비판매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오히려 서방국가들의 분열상만 노출시키고 말았다.

서방국가들은 금년1월 對폴란드경제제재를 발동하면서 계엄해제, 정치범석방, 정부와 자유노조및 교회간의 대화재개등을 요구했다. 이제 자유노조가 不法化됨으로써 서방측의 요구조건도 달라져야 하게됐다. 계엄당국은 금년말까지 계엄을 해제키위한 사전작업으로 자유노조를 해체했다고 구실을 내세웠다.

그러나 금년말 계엄해제전망은 어둡고 노조지도자들에대한 탄압은 더욱 가혹해지고있다. 구금된 노조지도자의 수는 8월의 시위사태이후 1백50여명이 더 늘었다.

새로운 勞組法은 폴란드국민들을 짙은 불안속으로 몰아넣고있다. 자유에의기대가 무너진뒤의 절망감이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다.

계엄당국은 전국규모의 노조연합체인 자유노조를 해체한뒤 공장단위 직업단위의 소규모노조를 결성케할 계획이다. 자유노조의 分解작업은 내년1월부터 개시되며 84년부터 공장및 직업별노조의 전국 조직화를 허용하고 85년부터 노조연합체를 허용하는 스케줄을 짜놓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85년에가면 지금의 자유노조의 골격이 되살아나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발톱과 이가 빠진 사자처럼 어용노조의 몰골로 되돌아가고 말것이다. 그러나 한번 뿌려진 자유의 씨는 언젠가 다시 움트게 마련이다. 폴란드국민들은 凍土속에서 봄을 기다릴 것이다.

【林鍾乾기자】

波、自由勞組 완전解體

새法案통과 탄생2년만에 消滅

【바르샤바AP UPI=聯合】폴란드의회(SEJM)는 8일 자유노조등 모든 기존노조를 공식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노조창설을 골자로한 새노조법안을 재석 4백60명중 찬성4백41, 반대 10, 기권 9표의 압도적 다수결로통과시켰다.

이로써 東歐圈사상 초유의 폴란드자유노조는 탄생26개월만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됐으며 이로인해 지난해12월13일 계엄선포와함께 간헐적인 反정부 폭동으로 얼룩진 폴란드는 새로운 양상의 소요사태에 직면했다.

폴란드국회의원들은 이날 국영TV가 표결광경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가운데 ▲自由勞組등 기존노조의 해체▲ ▲파업권제한 ▲장차의 勞組등을 지역수준으로 제한하는것 민조합들의 농촌자유노조移行을 금지하는 법안을 거수표결로 통과시켰다.

폴란드 공산당 제1서기겸 수상 야루젤스키장군은 이날 표결결과에 만족을 표시했으나 반대표를던진 가톨릭평신도층신의 야누즈·자블로키의원은 이법안통과로 새로운 항의사태가 촉발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날 의회에서 통과된 노조법안은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있다.

이 법안은 또 앞으로 3년동안 노조개편에 필요한 지침들을 설정하는 동시 노조 수준을 지역수준으로 제한하고있다.

勞組해체 끔찍한것 레이건 警告

【산타바바라(美캘리포니아)州 UPI=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폴란드 의회의 자유노조 해체결정에 대응, 10일(한국시간) 새로운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래리·스피크스 백악관부대변인이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레이건대통령은 미구엘·마드리드 멕시코 대통령당선자와 회담을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폴란드 계엄당국의 조치는「끔찍한것」이라고 말했다.

波 自由勞組불법화 ILO서 驚愕표시

【제네바AP=聯合】국제노동기구(ILO)는 8일 폴란드 계엄정부가 자유노조활동을 불법화시킨데『경악』을 표시하고 이는 ILO의 규칙에 비추어 불법일뿐만아니라『중대한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시스·블랑샤르 ILO사무국장은 폴란드당국에 대해 새노조법안을 수정해 자유노조가 그들의지위를 이법의 정신과 일치시키는 조건으로 자유노조의 존속을 허락하도록 제의했다고 밝혔다.

스즈끼 逐出 自民서 전개

【東京UPI=聯合】오는11월에있을 일본 自民黨총재선거를앞두고 후쿠다·다께오 前수상파를포함한 스즈끼수상의 自民黨내 반대 세력들이 8일 스즈끼 수상의 경제정책등을 비난하면서 그를 수상직에서 몰아내기위한 반대운동을 펴기시작했다.

후쿠다前수상은 이날 自民黨의원 다수가 참석한 한출판기념회에서 自民黨은 선거에서 이길지모르나 스즈끼수상의 경제정책실패에 관한전국적인 불만의소리를 듣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西獨、蘇 核감축않으면 美 최신형核무기 配置

【본UPI=聯合】헬무트·콜 西獨수상은 소련이 핵무기의 삼당수준을 감축하지않을 경우 내년가을까지는 미국의 신형중거리 미사일들을 西獨내에 배치할 것이라고 7일 경고했다.

일주일전 西獨의 제6대首相으로 취임한 콜首相은 이날 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본을 방문중인 소련의 고위관리들과 만나 자신이 이끄는 새 보수정부의 강력한 방위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소련이 현재 진행중인 제네바군축회담에서 SS20 미사일 2백基를 감축하기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독은 내년10월부터 美國의 크루즈와 퍼싱미사일을 서독내에 배치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回教徒 70명 사우디、強制추방

【리야드=UPI聯合】사우디아라비아는 회교聖地 메디나에서 7일 또다시 대규모 정치소요를 주도한 이란회교도70명을 체포하여 모두 강제추방했으며 앞으로 이란人의 사우디입국을 엄격히 규제키로 결정했다고 리야드방송이 8일 보도했다.

리야드방송은 이날 사우디내무성 성명을 인용, 70명의 이란회교순례자들이 성지순례도중『소란한 정치집회』를 주도한후 사우디당국에 체포되어 강제추방됐다고 밝히고 이들이 7일밤 메디나에서 일으킨 정치소요로 19명이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모델과 裁斷師 앙상블 82년도 종합 패션·쇼를 선보이기 위해 런던에 와있는 필리핀재단사 피토이·모레노씨가 자신의 두 모델들 사이에 서서 포즈를 취하고있는데 늘씬한 모델들 틈새라서 그렇잖아도 작은 키가 유난히 작아 보인다.【런던6日AP=聯合】

海外토픽

'99년에 3次大戰 터진다'

★노스트라다무스 豫言

제3차 세계대전이 오는1999년에발발하여 2026년까지 27년간 계속될것이라고 16세기의 프랑스예언가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날 파리에서 발간된 모리스·샤를랭著『세계의 종말』이란 책에 따르면, 3차대전중 아랍국가들은 中共과 동맹을 맺고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침공을 당하게되며 소련군은 중부유럽에서 6백만명의 병사를잃게 된다는것. 또다른 소련군 1백만명이 프랑스 침공을 기도하다 죽음을 당하며 아르메니아에서도 상당수의 소련군이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고.

이 책은 또 지구상의 생명체가 오는 3797년에완전 소멸한다고 주장.【파리=AP】

헤이그、카터에발끈

★在任때 이侵攻승인 否認

알렉산더·헤이그 前미국무장관은 지미·카터전대통령이 최근 헤이그씨가 재임시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을 사전승인한것같다고 말한데발끈, 카터전대통령의 그같은 발언을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반격.

카터전대통령은 최근 일리노이주 애슐랜드에서의 한 연설을 통해『미국행정부의 어느누구 아마도 헤이그씨가 이스라엘의 침공을 사전승인한것 같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헤이그전장관은 카터전대통령이 상황을 아주 잘못 알고 있는것 같다면서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뉴헤이븐(코네티컷州)=AP】

★마닐라、이미지그르칠까 노출 심한쇼 團束

마닐라 최대의 인구밀집상업지구인 마카티 구역경찰관들은 요즘 색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다름아니라 호텔이나 나이트클럽에서 개최되는『대담한 패션쇼』를 어떻게 단속하느냐하는 것인데 이는 시당국이 지난7월『대담한 쇼』로 시의 이미지가 흐려지고있다는 기업인들의진정에따라 경찰에게 마카티지구의 일대정화작업을 벌이도록 지시한데서비롯된것.【마닐라=AP】

메아리

原畵

가을이되니 도처에서 그림잔치다. 가을美術大展을 비롯하여 각종 그룹전과 개인전들이 다투어 열리고있다. 푸른하늘로 가끔 쳐다봐야겠고, 찾아도 눈 갈데가 많은 철인데 아름다운 그림들마저 곳곳에 걸렸으니 가을은 눈이 飽食하는 계절이다.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회중에는 오늘 10일로 끝나는 新世界미술관의「근대프랑스名畵展」이란는것이 있다. 샤갈, 마티스, 르노와르등 이름있는 화가들의 작품 28점이 전시되어있다. 이런 대가들의 原畵를 본다는것은 우리나라에서 과히 자주있는 기회가 아닌데 그중에는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작가가 많다. 마르케, 키슬링, 드랭, 동겐, 그리고 누구보다도 모딜리아니의것이 나와있다. 마리·로랑생의 그림도 우리에게는 초대면이 아닌지 모르겠다.

모딜리아니의「목걸이를 한 여인」은 이것한점만으로도 족히 구경거리가 된다. 모딜리아니의 그림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처음 왔다니 반갑기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퍼진다. 웬만한 사람이면 다 이름을 알만한 그비극적인 화가 모딜아니인데도 전시장은 예상외로 한산하다. 어떤 화가한사람은 이전시회구경을 왔다가 1천원의 입장료를 받는것을보고 무료입장을 시켜달라고 떼를쓰더니 그냥돌아갔다고 한다. 그만하면 화가아닌 사람들이 모딜리아니에 관심이 없는 까닭을 알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놀라운것은 이 많은 名畵들이 일본의 한백화점 소장품이라는 점이다. 미술관측에서는 일본의 백화점이 50여점가지고있는 것중에서 골라 빌어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대가의 그림을 소장하고있는곳이 한군데도없다.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버젓한 이름의 미술관이있긴하지만 거기에 그런名畵는 한점도 안보인다. 몇몇재벌들이 서양대가들의 原畵를한두점 가지고있을는지 모른다는말이 있으나 소문일뿐 확인되지않는다.

우리나라사람들의 국민적 常識가운데 가장 약한것이 미술이 아닌가 싶다.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 예술분야중에서 음악과 비교해본다면, 웬만한 가정에는 전축한대쯤있고피아노도 가진집이 많아 흔히듣는 명곡정도는 대개안다. 미술의 경우, 세계미술전집이 널리 보급되어있기는하지만 책꽂이에 꽂힌것을 한번 끄집어내자면 손에 먼지만 묻고, 벽에 名畵의 복사판이라도 좀 걸어놓을직한데도 복사판은 창피한것이라는 생각에 돈이 될만한 국내작가들의 그림들만 찾는다. 그래서 세계적화가의 이름을 음악가의 수만큼 아는사람이 많지않고 피카소라면이름 모른다는 사람은없어도 그의그림을 보이면 머리싸맬 준비부터 한다.

왜 우리의 소양은 세계미술과 먼가. 학교 교육탓도 있지만 미술관에 서양대가들의 名畵가 없기때문이라고도 할수있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에는 1년에 3백만명이 관람을 하고 그중 1백만명은 프랑스인이다. 학교 선생들은 미술시간에 학생들을 루브르로 데리고 나와 현장수업을 한다. 名畵들앞에는 젊은 화가들이 그그림을 보고 베껴그리는 모습을 볼수있다. 이 박물관에 걸린 많은 名畵들의 작가는 그 자신이 이 박물관의 그림을 복사하는것으로 그림을 배운 사람들이다. 미술관에 걸린 名畵 한점은 국민의 미술소양을 이렇게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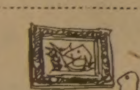
大루브르도 그 엄청난 所藏品에 만족하지않고 수시로 그림을 사들인다. 1973년 조르지·드·라·투르의「다이어먼드 1을 속인 사나인」라는 그림 한점을 1천만프랑(약12억원)에 매입한것은 이 박물관으로서도 기록이었다.

루브르뿐아니라 워싱턴의 국립미술관도 1974년 같은 조르지·드·라·투르의 그림을 15억원에 산 적이있고 미국의 다른 한 미술관은 1970년 벨라스케즈의그림에 35억원을 투자하기도했다.

우리는 일본을 표면적인 經濟指數로만 비교하여 쫓아갈생각을하고 있지만 일본의 일개 백화점이 50점이나 가진 名畵를 우리 국립미술관이 한점도 가지고있지않는 이 아득한 後進은 우리가 잊고있었다.

그림은 밝은 햇빛에 내놓고 보는 것이지 캄캄한데서 감추어놓고보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名畵를가진 것이 있다면 稅制上의 혜택을 주고 양성화시켜 국립미술관에 당당히보관하도록 하는것이 좋다. 미술관측에서는 빌어서 전시만하면 된다. 그리고 아직 國庫로 비싼 그림을 살 형편이 아니라면 재벌들더러 한점씩 사도록 권장하여 국가가 그 그림을 맡아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外貨를 걱정하겠지만 외국의 음악가나 교향악단을 초청할 경우는 외화가 그대로 버려지는데 비하면 그림을사면 그림이 남고 그것이 국가 재산이다.

年前 파리의 한 화랑이 名畵들을 팔려고 내놓았을때 값을 보니 모네의 50호짜리「水蓮」그림 한점이 70만달러, 30호짜리 피카소 것이 32만달러, 20호짜리 르노와르 것이 25만달러였다.



金聖佑 〈編輯委員〉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주택
1. 마캄 & 휜치 -4 Br.Rm. 방갈로. 잘 꾸며진 지하실. 싸우나. Fire Place 가격: 12만4천9백불
2. 세퍼드 & 빅토리아 파. 4 Br.Rm. 2층쎄미. 교통좋고 학교 가까움. 처음 사시는 분에겐 최적. 가격: 10만5천불.
3. 에그링톤 & 빅토리아 파. 3 Br.Rm. 콘도미니움. 수영장. 테니스 코트. 시내 가까이 좋은 주위환경. 학교 쇼핑센타 가까움. By Builter - 케디락 페어뷰에서 지었음. 가격: 6만2천9백불
4. 돈밀스 & 로렌스. 3+1 Br.Rm. 방갈로. 고급주택가. 학교. 쇼핑가까움. 10¼% 몰게지. 좋은 환경. 잘 꾸며진 지하실. 가격: 13만9천9백불
5. 블루아 & The East Mall. 4 Br.Rm. 방갈로. 넓은땅. 100×160. 교통편리. Fire Place. 가격: 17만5천

★드라이크리닝
1. 주매상: 2천6백. 렌트: 월 $1,000 3년. 순수입: 월5천 가격: 9만불
2. 주매상: 1천5백. 렌트: 월 $1,600 5년+5년 가격: 7만불
3. 주매상: $1,100 렌트: 월 $1,100 5년+5년 가격: 4만불

★도넛츠숍
1. 주매상: 5천5백. 렌트: 2천7백. 1년. 10년옵션. 13만불다운. 가격: 19만9천
2. 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 12시간만 하는 도넛츠숍. 연순수입: 5만불 가격: 12만5천

★Hunts 베이커리
쇼핑센터내에 주매상: 4천5백. 3만불 다운. 가격: 13만5천

★쇼핑몰내에 Fish & Chips
주매상: 약8천. 렌트: $2,291.66 4년. 15만불다운. 가격: 29만불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천5백, 5천5백, 6천5백, 1만4천, 1만6천.

★가게딸린 건물
주매상: 3천, 5천, 6천, 7천, 1만천.

※그외의 여러 곳의 땅과 투자용 건물에 관해 문의하세요.

황용현 286-1548(R)

이헌영 686-020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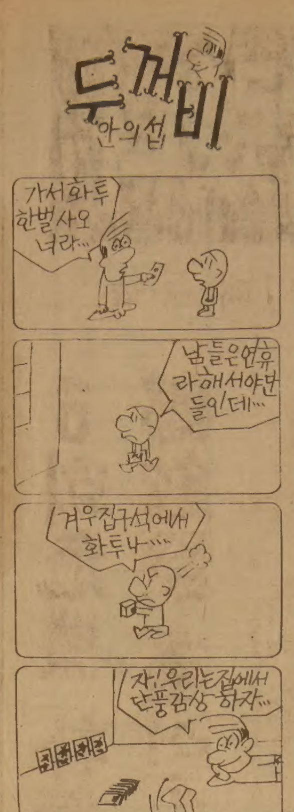
강정숙 244-8918(R)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주먹구구 「두더지」工法 工期단축이 慘禍 불러

瑞草洞3號線 地下鐵 붕괴

잦은 爆破에 安全점검 零點

支保工바꾸다 꽝… 「바위地獄」 손못대

◇原始사고 — 구조반원들이 두더져내린 바위에 깔린 사상자를 앰뷸런스에 실어 후송하고 있다. 1백일만의 대형사고로 4명이 숨져 지하철공사 사망자는 모두 15명에 이르렀다.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공기(工期)에 쫓겨 무리한 공사를 계속하다가 또다시 지하철 참사를 빚었다. 이번 사고는 무다.

숨진 黃仁龍씨

숨진 裵成永씨

숨진 禹美洙씨

숨진 朴東臣씨

"事故 더이상 없다더니…" 市民들 不安

사람이 바위에 깔렸는데도 漢陽, 3시간동안 「現場」 숨겨

주민申告받은 警官에 "쉬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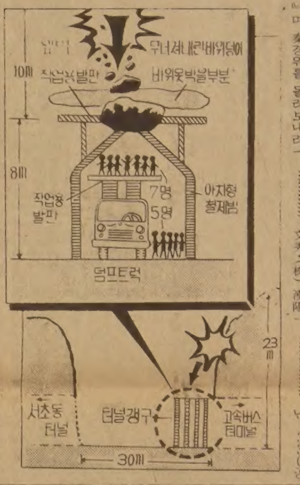
補償 상의후 最善

安全담당자 空席

金총리등 現場에

버스전복 1명숨져 20여명은 크게다쳐

여주서 「한글날 큰 잔치」



택시허위經歷사건

運轉士 61명 무더기 立件

회사代表등 34명 召喚

【釜山】속보=釜山지역 개인택시 신청자 허위경력증명 발급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시경은 9일 허위로서류를 만들어사용한 운전사 61명을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무더기입건했다. 【聯】

"한글은 民族문화의 金字塔" 金총리 어제 한글날記念辭

제5백36돌 한글날 기념식이 9일상오10시 서울獎忠洞 국립극장에서 金相浹국무총리를 비롯한 3부요인과 각계인사 7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됐다.

순절 5백26주년 死六臣 추모祭典

사육신 순절 제526주년 추모제전이 9일낮12시 서울 銅雀區鷺梁津洞 사육신 공원에서 거행됐다.

"檢察직원이 겁준뒤 市場돌며 商人협박"

서울서 2명拘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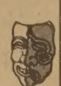
장물 헐값購入 鐵板억대횡령

5行뉴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輿論기피증

「큰손」 抗訴審재판장 朴萬浩판사



"절대적인 判決은 할수없는것"

【林承茂기자】

캐나다한인총연합

대한부인회바자회

일시 : 1982년11월13일 (토)
상오11시～하오4시

장소 :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or.)

품 목 : 떡종류, 된장, 고추장, 빈대떡, 밑반찬 젓갈 등등…
식 사 류 : 곰탕, 진주비빔밥(각 $3)
복 권 : 1장 $3.00
복권상품 : 1등—편물로 짠 이불1개 • 2등—흑백TV
3등—장미쌀 50LB • 4등～10등—장미쌀 25LB.
문의처 : 494—1856(양혜신)

●각 교회의 교우여러분은 나오셔서 저희 대한부인회를 도와 주시고
＊무엇이든지 갖고 오셔서 매매 하실분. 환영합니다.

캐나다한인총연합 대한부인회 회장 양혜신외임원일동삼가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구독신청 ☎:533－2361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Richard Y. 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 · 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차드 · 왕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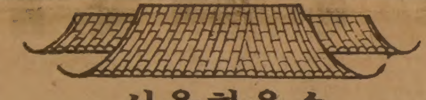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자
BAND－기타 : 신상철
올겐 : 한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Pender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 뽕 · 냉 면
짜장면 · 잡탕밥
전 문
615 BLOOR ST. W.
※일요일은 휴업
☎: 532－0602
김 신우

尹東均이 곰을 살렸다

코리안시리즈 3次戰 OB、三星꺾고 1승1패 동률

◇6회말 공격에나선 OB 9번 柳志烜이 2死후 우전안타로 나가 2盜, 1번 尹東均의 좌전적시타로 홈인, 5점째를 기록하고있다。

6회危機 朴哲淳이 구출

鄭鉉發 홈런추격도 허사

OB 三星

노장尹東均이 마침내 OB 승리의 길을 열었다。

大邱서의 참담한패배후 공격선봉으로 더욱 타봉을날카롭게 가다듬은尹東均은 8일 서울운동장으로 옮겨 벌어진 코리안시리즈 3차전에서 3회말 역투하던 三星선발 權永浩를 강타,중월 2루타로 선제득점의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5·6회말 적시타로 OB베어스에 첫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OB는 이날승리로 상승기세의 三星을꺾고 같은1승1무1패를 기록, 7전 4선승제의쟁패전에서 三星과 대등한위치에 올라섰다。

서울 첫게임에 배수의진을 친 OB는 6회초 고비에서 가벼운 허리부상으로 쉬고있던 에이스朴哲淳을 구원등판시켜 승리를 지켰다。

大田、大邱서의 악전고투로 OB강타선은 생기를 잃은듯했다。

1·2회에 삼진2개를 빼앗기고 三星선발 權永浩에게 범퇴당했다。3회말 1死후 타석에 들어선 OB의 노장 尹東均이 잠자던 OB타선에 불꽃을 당겼다。역투하던 權永浩를 강타한 尹東均의 타구는 중앙펜스를 맞히는 통렬한 2루타였다。

2死후 또한명의 노병 3번지명타자 金宇烈이 좌전에 적시타를 터뜨려 선제 1점을 올렸다。尹東均은 1-1로 뒤쫓긴 5회말 9번 柳志烜의 중전안타에 이어 또다시 좌월 2루타를 날려 무死2、3루의 황금찬스를마련했다。

2번 金光洙의 땅볼로 3루주자가 횡사했으나 계속된 1·3루 찬스에서 金宇烈의 타구를 三星유격수 吳大錫이 놓치는 틈을타 3루주자 尹東均은 번개같이 뛰어들어 홈을밟았고 2死후 5번 金裕東이 좌전적시타를 날려 OB는 3-1의 리드를 잡았다。

6회말 2차전까지 8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던 柳志烜이 두번째 우전안타를 때리고 2盜에 성공。세번째 타석에 등장한 尹東均은 좌중간을 뚫는 적시타로 柳志烜을 생환시켜 승리를 결정지었다。

4회초 5번 成學洙의 우전안타로 1-1의 동점을 만든 三星은 6번 鄭鉉發의 우전안타로 계속된 1死1·3루의 역전찬스에서 7번 千普成의 내야플라이、8번 金漢根의 3루앞땅볼로 맥없이 물러났다。

5-1로 대세가 결정된 8회초 三星은 침묵을 지키던 4번 李萬洙가 우익수옆으로 빠지는 3루타를때리고 5번 成學洙의 희생플라이로 홈인、했으며 6번鄭鉉發이 OB구원투수 朴哲淳으로부터 좌월솔로 호머를 빼앗아 2점을 만회했다。

◇3차전

삼성 (1승1무1패)	000	100	020	— 3
OB (1승1무1패)	001	021	10×	— 5

▲홈런=鄭鉉發 (8회·삼성)

"타격좋아져 기대"

▲OB金永德감독=朴哲淳의 다친 허리를 고치느라 그동안 고전했다。오늘 게임은 놓칠수없는 한판이었다。앞으로도 鮮于大泳·黃泰煥·姜哲元·金賢洪을 선발로 기용하고 핀치에서 朴哲淳을 계투시키겠다。

우승전망은 장담할수 없으나 타격이 점점 좋아져 기대를 갖고있다。내일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朴哲淳공략 주력"

▲三星徐永武감독=코리안시리즈 우승에 우리팀에게는 오늘이 가장중요했던 고비였다。지나치게 승부를 의식해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초조했던것이 패인이었다。아프다던 OB에이스 朴哲淳은 정상에 가깝다。그를 공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게임서는 4회초 동점을얻고 1死1·3루의 계속된 찬스를 놓친것이 가장 분했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세계挑戰 7連敗

金成南、도까시끼에 判定敗

【東京=宋孝彬특파원】한국의 金成南은 10일밤東京고오라꾸엔체육관에서 벌어진 프로복싱 WBA주니어 플라이급 타이틀매치 15라운드 경기서 스피드와 기량 열세로 챔피언 도까시끼·가쓰오(22)에 심판전원일치 판정패、타이틀탈취에 실패했다。

美國人들로 구성된 3심판의 채점은 146-140、147-143、147-141로 모두 도까시끼 우세였다。

이로써 한국프로복싱은 올들어 세계타이틀전서 통산1승1무5패를 기록했으며 지난해7월 金煥珍이 세계타이틀을 잃은이후 세계도전에서 7連敗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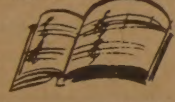
金成南으로서 역부족의 경기였다。

세계도전이 처음인 왼손잡이 金은 레프트 훅 [illegible] 스피드와 테크닉이 [illegible] 종반에는 스태미나마저 떨어져 12회이후 후퇴를 [illegible] 완패했다。경량급선수들에게는 펀치의 힘보다는 빠른발、빠른주먹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준 한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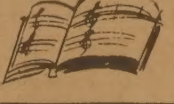
金은 10、11회에서 KO로 몰고갈 좋은 찬스를 잡았으나 연속타 불발로 기회를 놓쳤다。

金은 왼손을 제대로 뻗지 못해 오른손부상이 완치되지않은듯한 [illegible]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가나안교회	이 정 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 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 병 한	주일오전 7 : 30 오후 2 : 00 영어설교 오후1 : 30 금요저녁 9 : 00	2817 Lawrence Ave. 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 성 관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밤9시 기관모임 3:20 주일저녁 4:20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 남 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 필 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메시아한인교회	조 창 환	주일오후 1 : 30 영어예배 12 : 30 새벽기도 6 : 00 (오전)토,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딕시한인장로	차 주 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한인교회	신 용 규	주일오전11 : 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 : 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 용 진 적 춘 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 세 주	주일오후 1 : 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 : 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 상 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 경 진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 승 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 : 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 1430 429 2685
선교교회	강 제 철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 준 하 김 옥 희	주일영어 1 : 00 주일성경 1 : 00 주일예배 2 : 00 수요예배 8 : 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752－9860
대한수도원	조 권 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 요 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 1653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순복음카나다	조 이 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성산교회	계 화 삼	주일예배 11 : 00 12 : 30 수요오후 7 : 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에덴침례교회	정 태 진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 재 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얼)
오순절장로교회	장 세 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주일오후 4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 : 0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 용 순	주일오전11 : 0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 웅 출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7 : 30 주일오후 1 : 00 (영 어 예 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 형 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 관 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9 : 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 종 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 신 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 경 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 상 대	주일오후 1 : 00 (영 어 예 배) 주일오후 2 : 00 (대 예 배)	300 Queen's Dr. 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 희 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T. V. 예배 8 : 30～9 : 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 나 중	성경공부 2 : 30 예 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흘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의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차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八路拳道
교포 가인우대
이칭태, 이휘우 사범 직접 개인지도
온양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술,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복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Store Manager 또는 남자 Helper 구함.
956 Brimorton Dr. (내방바람)

성실한 여자 캐쉬어 구함.
전화 : 923-8737

Donut Shop에서 주말에 밤일, 낮일 「Part Time」하실 여자분 구함. ★전화는 오전11시 이후
전화 : 282-3553

유경험자 헬퍼 구함.(그로서리)
주말 파타임 학생 헬퍼구함.
전화 : 597-1115

남자, 여자용 옷 재봉사 구함.
3년 경험자에 한함.
전화 : 366-3227 FIT LIZHT STUDIO

식품점에서 일할 Helper 구함.(남자분)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주7일간)
삼복식품 전화 : 743-8270

5년이상 제과기술직에 종사하시던 분을 찾읍니다.
전화 오전9시-4:30사이
749-1822 Mr. Kim

★가게에서 Helper해주실
신체건장한 남자분 구함.(다운타운)

★Store Manager 구함(토론토 또는 시외지방)
단, 보증금 요함. 624-5817(Mrs.차)

Donut가게에서 밤일하실 (Full Time)
남자분구함. 저녁 10시-오전8시까지
전화 : 531-2689

웨이트레스 구함(Full Time)
전화 : 532-2727

입주하셔서 집안일 도와주실분
(중국가정임)
전화 : Mrs. Law 493-6190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Grade 7부터 Grade 9까지의 수학·과학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가 개인지도 또는 그룹을 지도함.
전화 : 293-3149 Mr. Sam Lee

양장, 재단 개인지도(윈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구직

Store Manager로 일하기 원함.
다년간의 경험 있음.
전화 : 533-2909(Mr. 오)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매매

Coffee Shop
주매상 : $4,000(7:00 a.m.~5:00 p.m.주5일 영업)
Rent : $1,575, 리스 : 3년반+5년, 10만불 Down.
good profit. 가격 : $165,000
황용현부동산주식회사
Call : 이헌영 449-8644(B), 686-0207(R)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Bargain Sale !
★Dairy Case(우유제품 진열장) 6ft.
★2 Door 냉장고(Store용) 242-4712 Mr. Kim

Grocery & Variety(2층 살림집 2Bed Rms 포함)
리스 : 5년 + 5년 옵션, 렌트(2층포함) : $625(M. 오년간)
주매상 : $3,500 아스킹 : $28,000 전화 : 463-8674

Fast food business for Sale
토론토 중심가에 큰 Mall안에 있음. 윗층으로 120여개의 점포와 640여 아파트와 그리고 사무실들이 있음.
아스킹 $25,000 주매상 : $1,800~$2,000(Short hours)
전화 : 979-3224(Andy)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Hardware Store for Sale
Finch Ave.(토론토 북쪽지역) Very Good Business
(안정된 사업) 전화 : 654-6600(Domenic)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300 리스 : 5년
전화 : 783-2576

미용실 급매. 드라이어: 6개
의자: 3개. 주인이 아픈 관계로 급매코저 함(좋은 가격)
Gus 전화 : 921-5947

House for Sale
Thornhill에 있는 (Bayview & Willowbrook area)
-5 Bedroom 4 Bathroom 2 Fireplace Hollywood Kitchen Family Rm. Finished Walk - out Basemt & Much more.
-Close to everything(School, Shopping Centre, etc.)
-Asking $199,500
Call Mr. Ivin Savov 889-3329

1981년 덧쥐 벤 추럭(Ram)
6기통. 25,000Km. 가격: $5,800
전화 : (B)622-2643 (R)626-1843

Variety Store 급매

총각이 혼자 새로 Set up한 전망밝은 Variety Store, 살림집 포함. 개인사정으로 급매.
오직 관심있는 분만 내방바람.
230 Ontario St., St.Catharines, Ont.

Variety Store 급매(이윤좋은 가게)
주매상 $2,500 Rent $450 리스: 4년반
Asking: $12000+스탁 전화 : 654-4709

Restaurant 급매(Full Licensed) 완전수리, 완전시설 갖춤. 좋은 위치와 좋은 조건(좌석 : 60여석), 좋은 전망이나 사정에 의해 급매코져 함. 전화 : 656-0456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렌트 : $950
주매상 : 6,500. 리스 : 3년+5년(에토비콕지역)
전화 : 621-2059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읍.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세탁소 매매(pick-up) (Almar Cleaners)
640 Rogers Rd.(At two Block west of Keele)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포류갈 빵가게및 버라어스티가게. 지하실, 2층 아파트 세놓을수 있음 Asking 13만불(권리금+건물) 2만5천불 다운페이 원함. 1602 Dufferin St. 전화 : 657-1554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GROSS 캐쉬레지스타 팔고자 함.
관심 있으신분 내방바람
468 Cosburn Ave.(Greenwood & Cox well)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방세 혹은 하숙합니다. 1 Bedroom
Near Dufferin Subway. 여성에 한함.
전화 : 279-2369(R) 533-2361(B) Mrs. 조

실비하숙 또는 방세 놓읍니다.
상세문의 오후 5시 이후 전화 : 530-104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집렌트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Flat for Rent(Euclid & Harbord)
$375/M.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사이에 연락바람.
전화 : 977-3758

2층 전체 방세놓습니다. 방2개, 응접실, 부엌, 목욕탕, 써니룸. 월 $450(모든것 포함)
전화 : 530-4321, 536-0754

집세놓음 (4 Bed Rms) mimico area.
중앙식 Air Con . 차고 있음. 교통 매우 편리.
Downtown에서 5분 거리 전화 : 368-9018, 366-0960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대환부동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엠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10월16일~11월14일(일) (한달간)

울며겨자먹기세일

극심한 생존경쟁을 뚫고 나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금번 해밀톤 서울식품을 OPEN 함과(10월15일) 동시에 1달동안 최대의 세일을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인조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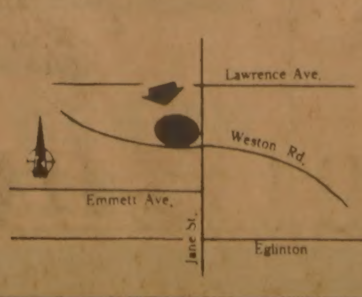
특별 원가제공품목

쌀, 배추, 무우, 불고기, 갈비, 조기, 오징어, 보리차, 강냉이차, 메주가루, 북어포, 엿기름가루, 한국산 자연굴 (인공생산이 아님), **냉면** (2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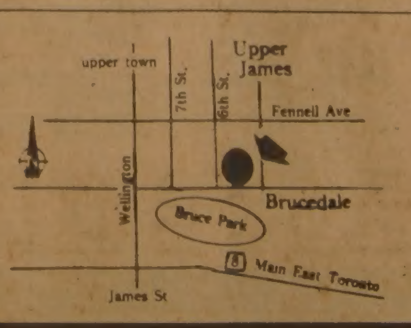
	Spe.	Reg.
⊙조기 1 BOX(중, 대)	$48.95	~~$52.50~~
⊙물오징어 1 BOX 22 Lb. (대)	$22.95	~~$23.95~~

배 추 5 BOX 사실 경우 (1 BOX Free)
무 5 푸대 (1 푸대 Free)
- 서너집에서 묶어서 구입가능 합니다.
- 배추, 무우 5 BOX 사시는 분께 굴 1~2Lb.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저희 식품점(서울 서부식품이나 해밀톤 서울식품)에서 100불이상 물건을 사실 경우에는, 30불 현금을 즉석에서 내어 드립니다. (특별원가제공품목은제외)



서부 · 서울식품
1391 WESTON RD.
(로렌스 × 웨스톤)
☎ : 243 - 9544



해밀톤 · 서울식품
128 BRUCEDALE AVE. E.
☎ : 1 - 385 - 1485